

이스탄불여성의 폐면문화 연구

The Study of Face Concealing Culture of Istanbul Women

주성대학 뷰티스타일리스트과
부교수 박보영

Department of Beauty Stylist, Juseong College
Associate Professor : Bo Young Par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사회 문화적 · 지리적 배경 | 참고문헌 |
| III. 이스탄불여성의 폐면아이템에 관한 특징 고찰 | |

<Abstract>

This study will covered socio-cultural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 of the face-concealing culture of Istanbul which has liberal and westernized clothes culture for women even if it's an city in an Islamic country. This study depended on literatures related to religion, culture and costumes of the Ottoman Empire, especially costumic data on miniature of turkey, which was famous from 16th to 19th century. Since the 17th century, the Ottoman Empire has been gradually influenced by European countries but the change of women's clothes was not considerable. In the 18th century, women's clothes were influenced by foreign fashions. A veil to cover the face was gradually disappeared and traditional Turkish headdresses were replaced by European hats. Through face-concealing culture of Istanbul, we can see some socio-cultural features like Islamic religious character, one's social position, economic situation, westernization and renovation, beauty and completion of costume, duality for the reason of regional difference.

주제어(Key Words) : 이스탄불(Istanbul), 폐면문화(concealing culture), 베일(veil), 이슬람(Islam)

I. 서론

터키는 이슬람국가이지만 다른 이슬람국가에 비해 여성의 복장은 서구화, 현대화 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이슬람국가에서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여성폐면의 관습에 대해 융통성을 보이는 개방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폐면의 관습은 각 문화마다 차이가 있지만 종교적인 의미 혹은 여성의 지위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의 접점지이며 기독교문화와 이슬람문화의 접점지로서 두 대륙의 문화를 모두 반영한 복식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여건으로 인하여 타 이슬람지역에 비해 여성폐면에 대하여 융통성을 가지게 되었다.

터키의 서구화, 현대화의 중심에 있는 이스탄불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다른 이슬람지역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집트의 일부 베드윈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고 눈 부분만 망사처리 된 부르카를 입는다. 이란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작은 눈구멍만 개방되고 전신은 폐된 차도르를 착용하며 파키스탄이나 모로코의 여성들은 아랍의 히잡에 얼굴 가리개를 덧붙인 니캅을 착용한다(오은경, 2008)(Fig. 1). 반면 이스탄불은 여성폐면에 대해 개방적이며 복장의 서구화를 이루어 냈는데 이것은 터키의 개혁운동과 여성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이슬람문화권에서 여성의 폐면관습에 매우 개방적으로 보여지는 이스탄불 지역의 폐면문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은 첫째, 터키의 이스탄불 정복 후 문화적 충돌과 더불어 근대화가 시작된 16세기부터 현대까지의 쓰개와 베일의 변천을 분석한다. 둘째, 이스탄불 여성폐면의 주요 아이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파악한다. 셋째, 여성의 차림에 대하여 개방화 및 서구화를 이루게 된 이스탄불지역 폐면문화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들의 폐면문화에서 보여지는 성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므로써 현 시대를 특징짓는 세계화 및 다문화의 사회에서 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스만터키의 종교와 문화, 복식과 관련된 문헌을 기초자료로 하였고 특히 이스탄불 여성의 복식관련 그림 즉, 당시 풍속을 나타낸 풍속화와 초상화 등을 복식연구자료로 하였다. 톱카피 궁(Topkapi Saray)은 15세기부터 1924년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탄불 내의 술탄의 궁전이었다. 혁명 후에는 터키의 유물을 보관 전시하는 박물관이 되었으나 복식유물은 대부분 남자의 것으로 이스탄불 여성의 복식 실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16세기는 궁중예술의 형태를 띤 세밀화가 발달하여 당시 궁중과 이스탄불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성행하였던 '미니어처(miniature)'라 불리는 터키의 세밀화에 나타난 복식삽화를 주 자료로 하였다. 본 연구의 지역범위는 광대한 오스만제국에서도 특히 동서양이 만나는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로 하였으며 시대범위는 이스탄불이 터키에 의해 점령된 16세기부터 여성의 차림이 현대화, 서구화되는 시점으로 하였다.

II. 사회 문화적 · 지리적 배경

1. 이스탄불의 지리적 · 사회 문화적 특성

현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은 광활한 터키 국토 중 유일하게 유럽에 속한 곳으로 동서문화의 교류가 활발한 곳이다. 과거 비잔틴이었던 이 지역은 A.D. 330년부터는 동로마의 콘스탄티누스대제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수도가 건설되어 찬란한 기독교 문화인 비잔틴문화가 수백년간 지속되었다. 13세기에 일어난 오스만 터키는 영토를 확장하여 1455년에 이곳을 정복하면서 이스탄불이라고 명칭을 변경하고 이슬람종교가 접목되었다. 이스탄불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대륙이 맞닿아 있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하여 그리스의 헬레니즘과 비잔틴, 그리고 이슬람이 융합된 찬란한 문화가 만들어졌다. 터키는 이슬람제국이기는 하지만 영토확장 과정에서 흡수된 이민족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그리스정교, 아르메니아 기독교 등을 인정하는 등 종교적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크레타섬의 복식과 같은 형태의 드레이퍼리한 의복을 착용한 것은 지중해적인 요소이지만, 카프탄과 같이 잘 재단된 의복제작방식은 다분히 유럽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앞트임의 포전형 의복은 아시아적인 특징으로 이스탄불의 지리적 특징이 의복에 반영되었으리라 추측된다.

13세기에 일어난 오스만 터키는 국토를 넓혀 나가면서 1455년에 마흐메드 II(Mehmed II)가 비잔틴제국을 정복하고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정하면서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크리스찬의 도시가 이슬람의 도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오춘자, 박길순, 1994).

터키는 인구의 대다수가 무슬림이면서 세속정부가 있는 나라로 세속적 무슬림과 비 무슬림이 공존한다. 현대 터키 사회 특히 이스탄불은 많은 다른 가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중해 문화적 요소, 이슬람 문화, 세속적 서구문화, 무신론적 사회주의, 다양한 종교적 문화가 혼재한다. 종교는 외형적으로 대다수가 무슬림이지만 종교와는 무관하게 보이는 서구 지향적인 여성들이 있는 반면 극이슬람적인 부류, 무슬림이면서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닌 부류가 혼재한다. 이스탄

불은 매우 서구 지향적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슬람의 강한 종교성을 띄며 현재에도 베일을 두른 여성과 두르지 않은 여성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이정순, 2001).

2. 터키여성의 폐면문화에 내포된 의미

역사적으로 이슬람 국가에서는 남성으로부터 여성의 얼굴을 감추기 위해 베일이 널리 애용되어져 왔다. 여성이 외출시 타인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는 풍속은 오래 전부터 중국, 동, 유럽, 중국 등에서 널리 퍼져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부터 여성이 외출시 얼굴을 가리웠는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류보영, 임상임, 2002). 머리카락과 얼굴을 가리는 관습은 비단 이슬람문화권이 아니라도 과거의 기독교문화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존재해왔다. 종교적 이유 외에 여러 가지 목적에서 착용되었는데 몇몇 사회에서는 노예를 구별하기 위해, 선행을 표현하기 위해, 조문중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착용되었다(Tuglaci, 1984). 이러한 관습은 종교나 사회적 상황, 여성지위의 변화 등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폐면의 관습은 이슬람문화권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슬람교만이 일반 무슬림 특히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종교를 나타내는 베일을 전 세계적으로 착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슬람은 단지 종교만이 아니라 알라가 제시한 총체적인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이정순, 2001). 그러나 이슬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폐면에 대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터키 여성들은 1908년 혁명 때까지 베일을 착용하였다. 혁명 이후부터는 여성들은 점차 얼굴을 가리려는 풍습이 사라져갔다. 베일은 차르샤프(charshaf)와 함께 착용하게 되면 얼굴이 완전히 가리지며 매우 얇은 머슬린이나 거즈로 만들어졌고 이슬람문화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얼굴 가리는 방법이었다. 터키에서는 1923년 공화국 선포이후 종교적 이유의 베일 착용이 금지되었다. 오늘날 많은 아나톨리안(Anatolian) 지역에서 여성들은 한쪽 눈만 빼고 얼굴을 모두 가린다. 필요에 따라 베일 대신 차르샤프를 쓰기도 한다(Tuglaci, 1984). 오스만제국 말기의 ‘탄지마트 개혁’ (Tanzimat Reform: 1839-1876) 운동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대화의 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오스만제국 전체체제 내에서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폐쇄적이었던 오스만 사회를 근대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탄지마트 개혁으로 여성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우덕찬, 2003). 즉 현대화의 대개혁 운동에는 여성의 교육과 복장의 개혁이 포함되어 있어 오스만제국의 말기에 여성해방이 이루어지고 터키 공화국이 성립됨에 따라 여성의 차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즉 상류층은 망토, 외투 등

을 벗어버리고 얇은 시폰으로 베일을 대신하였다. 터키의 서구화 과정에서 여성의 베일은 논쟁의 중심이었으며 스커트의 길이와 베일의 재료, 천의 두께는 거의 200년 동안 공개적으로 토론되어왔다. 베일은 현대화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상징으로 사용되어왔다(이정순, 2001).

Ⅲ. 이스탄불여성의 폐면아이템에 관한 특징 고찰

1. 시대별 변천과정 및 특징

16세기 초, 이스탄불 여성의 폐면아이템은 강조된 호토프와 스카프가 특징적이다. 스카프의 양 끝을 목에서 묶고 다른 두 끝은 태슬(술장식)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등쪽으로 내려와 허리까지 늘어져 있다. 머리를 덮는 스카프 아래로는 마스크 같은 베일이 코를 덮을 정도로 내려와 있었다(Fig. 2). 머리에는 볼 아래에서 매어져 가슴께로 늘어뜨린 커치프 위에 호토프를 강조하였다. 커치프의 뒤쪽은 더 길었으며 허리까지 내려오는 태슬이 달려있었다. 이 위에는 모서리가 뾰뾰한 베일을 착용하였는데 위쪽은 좁고 얼굴 아래쪽으로 퍼지는 모양이었다. 폐면아이템의 다른 형태는 역시 강조된 호토프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 경우에는 하얀 천에 가장자리가 금사로 수놓아져 있고 금색 태슬이 뒤에 달려있었다. 이 위에는 앞에 설명한 것과 비슷한 형태의 베일이 있었으나 이 경우가 더 곡선을 이루고 있다(Tuglaci,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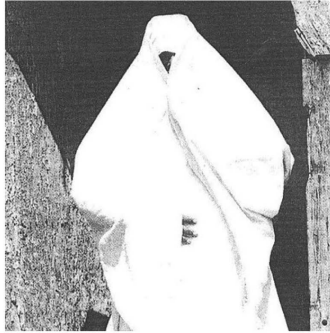
17세기 여성의 폐면아이템은 16세기에 비하여 단순해졌다. 머리쓰개는 호토프, 깃털장식(aigrette), 태슬로 이루어졌다. 17세기 이후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영향을 서서히 받기 시작하였으나 여성의 외출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이정순, 2001)(Fig. 3). 18세기는 여성복장의 우아함이 절정에 다다랐는데 이것은 툴립시대(Tulip Era)의 영향이었다. 18세기 툴립시대(1725년)에 복식금지에 대한 칙령이 내려졌다. ‘신계서 모든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오스만제국의 이스탄불을 보호하사 모든 대중은 그 계급에 따라 복식이 정해져 있을진대 최근 철면피 여성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혁신적인 옷으로 이상하게 치장하고 나오는데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자의 상징이니 대중을 물들이기 위함이라. 베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뻘뻘스러운 행동은 법령에 대한 도전이다.’ 후대인 탄지마트시대(Tanzimat Era)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의 경고가 내려졌고 여성들에게 강요되었는데 이것을 온건하게 행동하고 의복을 착용하라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라마단 기간중에 술탄이 도시의 모스크(사원)를 방문하기 때문이었다(Tuglaci, 1984).

18세기 초기는 매우 투명한 느낌의 흰색 야스막에 금으로 각종 보석으로 장식한 모습이 보인다. 차르샤프도 가벼운 것이

유행이어서 실크로 만들고 레이스나 시폰으로 만든 얇은 베일과 함께 착용하였다. 가난한 계층에서는 투박한 느낌의 검정 베일을 착용하였으며 18세기 말경 이스탄불에서는 유럽패션이 점차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이정순, 2001)(Fig. 4, 5).

19세기 이전부터 터키 여성의복은 외국패션의 영향을 받

아왔는데 특히 19세기에 이르러 술탄 마흐무드 2세 (Mahmud II)가 유럽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으로 궁중이나 이스탄불 상류계층사이에서는 유럽패션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오춘자, 박길순, 1994). 유럽인이 증가하면서 터키 여성들은 유럽여성의 복식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Fig. 1〉 히잡을 쓴 이슬람여성
이희수, 이원삼(2003)



〈Fig. 2〉 16세기 터키 여성
Tuglaci(1984), 루스키인쇄박물관소장



〈Fig.3〉 17세기 터키 여성
Tuglaci(1984), 삽화



〈Fig. 4〉 18세기 터키여성
Tuglaci(1984), 작가 Abdullah Buha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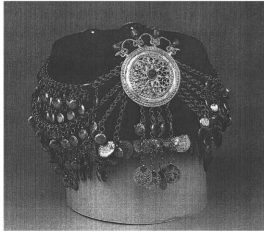
〈Fig. 5〉 검정 쓰개를 쓴 초상화
Tuglaci(1984), Nigâr Hanoum의 초상화, 작가미상



〈Fig.6〉 19세기 터키 여성
Tuglaci(1984), 작가 Camille RoGier



〈Fig. 7〉 19세기 Charshaf
Tuglaci(1984), 작가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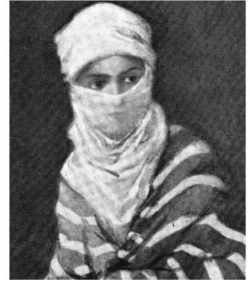
〈Fig. 8〉 Fez
トルコ文明展(1985)
앙카라민족박물관소장



〈Fig. 9〉 19세기 Veil
Tuglaci(1984)
작가미상



〈Fig. 10〉 ribbon Hotoz
Tuglaci(1984), 삽화



〈Fig. 11〉 Yashmak
Tuglaci(1984)
작가 Warwick Goble

특히 프랑스왕조가 술탄을 방문하였는데 두 왕조간의 교류가 여성복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말 여성들은 헐렁한 겉옷인 차르샤프를 입었는데 이 의복은 허리밴드가 있는 것, 스커트에 슬릿이 있는 엠파이어 스타일 등 여러 형태가 있었다. 얼굴은 모슬림으로 만든 베일로 가렸는데 후에는 베일을 내려서 얼굴을 드러내었다(Fig. 6). 패셔너블한 여성들은 차르샤프와 함께 망토를 착용하기도 하였다(Tuglaci, 1984)(Fig. 7). 이처럼 베일은 시대에 따라서 점차 간소해졌고 좀 더 얇고 투명한 거즈를 사용하여 보이지 않았던 얼굴이 비치게 되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2. 이스탄불여성의 폐면아이템 유형

이스탄불 여성의 폐면아이템은 일반적으로 착장할 수 있는 것과 머리에 직접 장식되는 것의 두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페즈나 호토즈와 같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쓰개에 자신의 머리에 맞추어 쓰는 베일을 함께 사용하거나 단독적으로 착용하게 되는 형식이다.

1) 페즈(Fez)

〈Fig. 8〉 페즈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 하나였는데 키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시키기 때문에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석으로 장식하기도 하였다. 페즈의 크기는 다양했고 소재는 부드러운 것과 딱딱한 것 모두 가능하였고 어떤 것들은 은실로 자수된 것도 있었다(Tuglaci, 1984).

2) 베일(Veil / kerchiefs, crepe, shawls)

〈Fig. 9〉 베일은 페즈만큼 많이 활용된 중요한 아이템으로 머릿수건(kerchiefs), 크레이프(crepe)와 쇼올(shawls) 등 다양한 소재와 형태로 만들어졌다. 어떤 것은 베일이 완전히 갖추어진 다음 마지막 덮개로 사용된 반면, 어떤 것은 페즈와 다른 베일 아래 혹은 위에 사용되었다. 보석, 금, 은, 진주, 악마의 눈(터어키의 주술적인 부적으로 눈이 그려져 있는 파란

색 돌), 매쉬알라(‘mashallah’라고 새겨지거나 각인된 보물로 ‘mashallah’는 ‘신께서 보호하소서’라는 뜻, 오야(oya, 바늘로 작업된 레이스 형태) 등 이었다(Tuglaci, 1984).

3) 호토즈(Hotoz)

〈Fig. 10〉은 삼각수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모양은 원추형, 투구형에 얇은 천이나 솔로 장식하고 깃털, 보석, 리본으로 장식하기도 하였다(오춘자, 박길순, 1994).

4) 야스막(Yaşmac)

〈Fig. 11〉 야스막은 ‘자신을 덮는다.’는 뜻의 터키어로 얇은 천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는 머리 위에 쓰고 하나가 턱 아래쪽에 매는 형태이다. 어깨 위로 내려오는 부분은 페라스(Ferace) 안으로 밀어 넣어 썼는데 눈, 코와 눈썹 부분만 노출된다. 차르(Car)는 야스막과 함께 입는 흰 직사각형 모양의 쇼올이다. 머리와 신체의 윗부분을 감싸주는 쇼올은 가까운 곳에 외출할 때 착용하였다(이정순, 2001).

5) 카쉬바스티(Kashbasti)

카쉬바스티는 머리띠(headband)의 일종으로 눈썹 바로 위까지 머리를 둘러 착용하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착용된 것으로 그리스인들로부터 유래되었으며 라틴에서는 다이아DEM(diadem)으로 불리웠다. 오스만에게는 디딤(didim) 혹은 카쉬바스티로 불리웠다. 알렉산더대왕은 카쉬바스티를 서쪽으로 전파시켰고 여성을 위한 머리장식이 되었다. 오스만 궁전에서는 외국인 여성, 이를테면 술탄 술레이만(Sultan Suleyman)의 하렘에 있던 그의 첩종의 하나인 허렘 술탄(Hurrem Sultan)이나 무라드 3세(Murad III)의 아내 중 하나인 샤프티 술탄(Safiy Sultan)에 의해 처음 착용되었다. 카쉬바스티는 나중에는 여성에 대한 종교적 탄압으로 여겨져 귀족 여인들로 하여금 착용을 금기시하게 되었으나 이스탄불과 같은 큰 도시에서는 최근까지도 여성들에게 사용되고 있다(Tuglaci, 1984).

6) 두박(Duvak)

두박은 신부에게 입혀진 폐면아이템으로 처녀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주로 흰색 머슬린(muslin)이나 레이스(lace)로 만들어졌다(Tuglaci, 1984).

7) 바실리크(Bashlik)

신부의 헤드드레스는 왕관, 깃털, 꽃 부케의 형태였다. 보석으로 장식된 신부의 헤드드레스는 바실리크(bashlik)라고 불리었다(Tuglaci, 1984).

3. 폐면문화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성향

1) 이슬람 종교적 특성

기독교와 기원을 공유하고 있는 이슬람교의 경우도 여성들에게 히잡이나 차도르를 이용해 머리카락이나 온 몸을 가릴 것을 오늘날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종교를 믿는 집단의 종교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장상숙, 2008). 이스탄불은 대다수가 이슬람교도로서 여성들은 하렘(harem)에서 생활하였는데 하렘이란 궁궐내의 후궁이나 각 가정의 내실을 가르킨다. 즉, 하렘은 이슬람사회의 풍습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여성과 아이들의 생활공간이다. 이슬람은 여성에게는 매우 보수적이며 억압하는 종교로 그러한 종교적 특징이 의복에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외출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복식으로 인해 외출복 차림과 실내복 차림이 확실히 구별된다. 이러한 폐면의 풍습으로 머리를 장식하는 베일과 모자류가 매우 발달되어 그 종류도 많고 장식 또한 매우 다양하다. 오스만시대에는 복장과 특히 모자는 종교적 충성심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이었다. 순니파의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서도 다른 이슬람 국가와 마찬가지로 남녀가 별개의 공간에 거주하도록 격리되어 있었고 여성이 외출을 할 때에는 외투와 베일로 전신을 감쌌다. 16세기부터 17세기 말까지 터키 도시의 여성들은 대중 앞에 베일을 착용해야만 나올 수 있었다. 베일은 무슬림 사회의 옷차림의 문제 이상이다. 왜냐하면 베일착용은 무슬림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꾸란에 명시된 것이기 때문이다(이정순, 2001). 현재에도 이스탄불의 모든 여성들이 개방화 서구화 된 것이 아니고 이슬람을 신봉하는 가정의 여성들은 폐면문화를 고수하고 있다.

2) 표현수단으로서의 폐면아이템

(1) 신분 및 상황의 표현수단

터키여성의 베일은 색상이나 착용하는 방법으로 신분이거나 그녀들이 처한 상황을 표현하였다. 즉, 소녀, 약혼녀, 신부, 과부 등 그녀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착용하였다. 소녀는 주로 흰 머릿수건을 사용하고, 어린 신부는 밝고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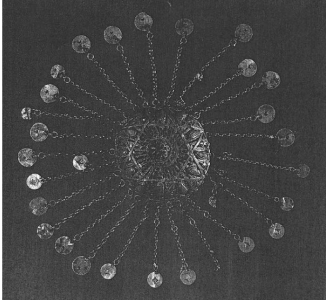
명한 색상의 베일을, 과부는 페즈 위에 검은 베일을 착용하였다. 머리스타일은 지역적으로 다양했고 여성들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위치에 따라 같은 지역 내에서도 상이한 규범이 있었다(이정순, 2001).

민족지리학적 연구는 이러한 장신구들이 지역별로 다른 의미를 가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들어 베일에 장식된 금동전의 개수는 어떤 여자의 자손의 수를 의미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결혼한 햇수를 의미하는 지역도 있었다(Fig. 12, 13). 페즈를 둘러싸고 있는 크레이프의 색상이나 숫자도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헤어밴드의 일종인 카쉬바스티는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주권의 상징으로서 착용되었다. 또한 남편에게 대든 버릇없는 여성에 대한 상징으로도 쓰여졌다. 어떤 지역에서는 소녀들은 결혼 전까지 그들의 옆 머릿단을 잘라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재혼을 희망하지 않는 과부는 그들의 앞머리를 머릿수건 안으로 넣었다. 전통적으로 재혼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과부에게 청혼한 남성은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또 밝은 색의 크레이프 스카프를 한 어린 소녀는 약혼을 하였거나 사랑에 빠진 것이므로 누구도 청혼을 하거나 접근을 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다(Tuglaci, 1984). 여성의 베일착용 상태에 따라 남성은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였고 따라서 베일은 당시 사회의 성문화 질서 유지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남성들 간의 분쟁을 막고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오은경,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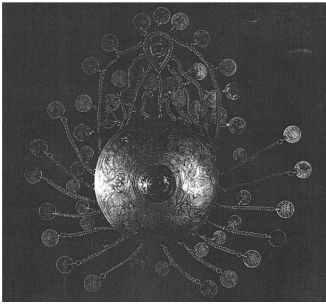
머리스타일이나 폐면아이템은 여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거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남성의 관심으로부터 여성을 격리시키는데 사용되었다. 이슬람문화권에서 남자와 여자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다른 세계에 산다. 이것은 의복규정에서 분명하게 특히 여성에게만 강요된 베일이 대표적이다(Schirmacher, 2010). 이러한 폐면관습으로 인해 여성의 나이나 신분 혹은 처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머리장식과 폐면아이템을 통해 이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2) 심미적 표현 및 복장완성의 의미

폐면의 아이템들이 그 초기 목적은 종교적이었는지라도 매우 심미적이었다. 베일은 옷의 한 부분으로 전체적인 의복과 조화를 이루어 착용되었는데 특히 헤어스타일은 이스탄불 여성들의 개개인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아주 우아하였다. 머리는 가느다랗게 땅아져서 어깨나 등 뒤로 내려졌는데 이것 위로는 붉은색, 옅은 파랑(pale blue), 파우더 핑크(powder pink)의 호토즈가 올려졌다. 이것은 머슬린(muslin), 크레이프(crape), 세퀸(sequin), 혹은 진주나 비싼 보석(ston)등으로 치장되었고 금사로 아라베스크풍으로 수



〈Fig. 12〉 Tepelik
トルコ文明展(1985), 앙카라민족학박물관소장



〈Fig. 13〉 Tepelik
トルコ文明展(1985), 앙카라민족학박물관소장

놓아지기도 하였다. 외출을 할 때는 질이 좋은 머리용 스카프(headcloth)를 호토프 아래로 늘어뜨려 이마를 덮었고 시폰 스카프를 목에서 친친 감아 입까지 덮었다. 머리용 스카프는 좋은 섬유로 만들어졌는데 모서리와 가장자리에는 자수가 놓여졌다. 역사를 통틀어 여성의 의복은 남성의 것보다 장식되어 있다. 머리장식이나 베일은 의복분야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고 여성들은 특히 이 아이টে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그 중요성이 많이 감소되었다. 토키아궁 박물관(topkapi palace museum)에서는 휴렘 술탄(hurrem sultan), 무라드 3세(murad III)의 무덤에서 발견된 귀중한 카쉬바스티가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장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다. 무라드 3세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은 잘짜여진 면으로 만들어졌다. 8각형 메달의 중심에는 8개의 꽃잎으로 구성된 꽃으로 장식되었다. 옷감은 완전히 금실과 은실의 자수로 채워져 있어 매우 심미적이다. 휴렘 술탄의 카쉬바스티는 잘짜여진 리넨(linen)으로 만들어져 있고 전체 표면은 금실로 자수되어 있다. 그 위에 청, 홍, 은사로 된 여덟 꽃잎의 꽃 모티프가 배치되어 있고 끝 모양이 3각형인 가느다란 테두리가 둘러져 있다. 휴렘 술탄의 또 다른 카쉬바스티는 가장 아름다운 자수의 예로 여겨지는 것으로 주요 모티프는 교차하는 사각형이다. 주변과 내부는 꽃 모양으로 채워져 있었고 테두리는 삼각형모양으로 마감되어

있다. 자수는 금사와 홍, 청, 백, 흑색의 비단 실로 되어있다 (Tuglaci, 1984).

이stanbul여성의 쓰개류는 자수를 많이 사용하고 매우 장식적이다. 얼굴을 가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에 착용되는 아이টে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하렘에서의 지루한 생활로 인해 바느질과 자수가 발달하였던 그들의 문화속에서 쓰개류의 자수와 장식은 당연한 산물이며 복장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주요 아이টে이었을 것이다.

(3) 경제적 상황의 표현

오스만투어키의 정복과 찬란한 문화로 인하여 Istanbul은 풍요로운 도시였다. 상류층 여인들은 항상 금, 은 혹은 색사로 장식된 서지(serge)나 벨벳(velvet)자켓을 입거나 혹은 추운 날씨에는 드레스위에 털 자켓을 입었다. 이 지역 직물의 색상은 매우 다양하였고 이것은 유럽인들이 Istanbul을 침략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16세기 Istanbul의 외국인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묘사로 Istanbul이라는 도시의 여성을 설명한다. “그들의 머리는 길고 등 뒤로 헐겁게 묶여 내려와 있었다. 그들은 머리에 뺨뺨하고 자수된 호토프를 썼는데 뺨 아래에서 묶여지는 베일 위로 착용하였다. 호토프 위로는 리본이 묶였다. 시폰스카프는 목을 몇 번 둘러 감아 착용하였다(Tuglaci, 1984)” Istanbul 여성의 의복은 ‘실크 브로케이트, 새틴 스커트, 브로케이드 스커트’와 같이 만들어진 옷감의 명칭에 따라 이름이 붙여지곤 하였는데 이들은 매우 값비싼 소재들이다. 모자와 의복을 장식하는 보석과 장신구 또한 매우 발달되었는데 이러한 의복과 액세서리는 경제적 풍요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Istanbul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격차가 아이টে이나 장식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Istanbul 여성들은 언제나 집에서 다양한 베일로 머리를 가렸는데 집을 나갈 때에는 호토프 위에 베일을 덮었다. 부유한 사람들이 매일 호토프를 착용하는데 비해 중류가정의 사람들은 결혼식에서만 호토프를 사용하였다. 부잣집 여성들은 부의 정도를 과시하기 위하여 뺨의 머리의 끝에 금, 은, 보석을 붙임으로서 상징적으로 부를 나타내었다. 부유하지 않은 여성들은 장식으로 염주, 철사, 꽃이나 리본을 사용하였다(이정순, 2004). 결혼식 베일은 매우 고가였는데 1939년 보석으로 장식된 헤드드레스는 200-1000리라까지 나갔다. 상류사회에서는 신부가 어떤 머리장식을 했는지가 몇 주간이나 회자되곤 하였다. 이것을 장만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는 주로 상인계층의 부유한 과부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신부의 결혼식 치장을 도와주는 일종의 상업적인 웨딩매니저였다. 그녀는 결혼식에 초대되

어 결혼 1~2일 전부터 신부의 집에 머물면서 신부의 머리장식을 도와주었다. 이것은 현대적인 의미의 렌탈형식으로 결혼식이 끝나면 회수해 가는 형태였다. 귀걸이, 팔찌, 브로치, 반지, 목걸이 등 다른 보석들이 들어있는 웨딩박스를 가지고 다녔는데 신부인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렌트해 주었다(Tuglaci, 1984). 이스탄불에서는 경제적으로 결혼배일을 장만하기 힘든 계층에 의해 현대적 의미의 웨딩 대여문화가 일찍이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3) 폐면문화의 변화

(1) 유럽의 영향

이스탄불 여성의 복식 개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유럽과의 문화교류이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19세기부터는 술탄의 개방정책에 의해 의복 서구화가 가속화되었다. 마흐무드 2세 때에 여성의 복식은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19세기 말 외국대사관과 사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이스탄불의 페라(Pera)지역에서는 기업화된 의류업체에서 생산되거나 프랑스에서 수입된 유럽스타일의 의복을 입게 되었다(오춘자, 박길순, 1994). 터키의 엔타리는 얇고 하얀 견으로 만든 혈렁한 슈미즈인데 그리스 크레타 섬의 여성 의상과 전체적인 실루엣이 비슷하다. 터키와 크레타 섬은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복장에 있어서도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의상디자인연구회 편, 1992). 이러한 문화의 교류외에 유럽국가의 정치 경제적 지배 또한 여성의 복식개방에 영향을 미쳤다. 즉, 19세기에 명맥을 유지하던 오스만 제국은 압둘메지드(1839-1861 재임)의 근대화 작업이 별 효력을 보지 못하고 그의 계승자 압둘 아지즈(1861-1876 재임)는 유럽의 자금을 과도하게 빌려온 결과 프랑스와 유럽국가의 간접적인 지배권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케말은 국교인 이슬람교를 철폐하고 유럽식 알파벳을 사용하면서 유럽화되어 갔는데 그 중심이 이스탄불이다. 이러한 변화는 서구의 은행에서 빌려온 빛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결국은

서구의 정치제도까지 받아 들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이명권, 2008).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으며,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의 다양한 요소가 융합된 동서 문화의 교차지이다. 끊임없는 교류로 인해 오늘날 터키인들은 동양의 정신에 유럽의 의복을 걸친 모습이다. 이스탄불은 헬레니즘과 비잔틴문화의 중심지에서 이슬람교의 문화를 받아들여 여러 문화가 혼합된 현상이 뚜렷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계속적인 연관관계에 의해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동서 문화의 복합체인 터키 복식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양식을 이루었다. 오스만제국은 13세기부터 확장되어 18세기 절정을 이루는데 이시기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하여 복식 변천에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다(전혜정, 2005)(Fig. 14, 15). 현재 이스탄불 여성의 세계관은 각 개인마다 가족의 전통, 교육수준, 연령 등에 따라 세속주의 세계관과 무슬림의 세계관이 혼합되어 공존하고 있다.

(2) 서구화 및 개혁의 상징

터키는 많은 이슬람국가 중 매우 개방적이고 서구화 된 나라이다. 특히 수도 이스탄불은 오늘날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하였으며 이스탄불을 방문하였을 때, 이슬람적인 요소 보다는 많은 문화가 혼합된 과도기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타 이슬람사회에서 폐면은 종교적인 의무라고 말하며 여성조차도 그것이 여성에 대한 억압이라기 보다는 꾸란의 규정으로 여기며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 요르단의 여학생마저도 머리와 목을 덮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눈만 남기고 눈 아래까지 덮는 것은 순나(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음)라고 하였다(공일주, 2006). 터키에서는 이스탄불 정복 이후 꾸준히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1839년의 '탄지마트 개혁' 운동은 폐쇄적이었던 오스만 사회를 근대화시키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고 특히 여성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다루어졌다(우덕찬, 2003). 터키의 서구화 과정에서 여성의



<Fig. 14>이스탄불의 그리스여성
Tuglaci(1984)
작가 Huseyin Fazil Enderuni



<Fig. 15>불가리아 여성
Tuglaci(1984)
작가 Jean Baptiste Van Moui



<Fig. 16> 19세기 서구화된 이스탄불 여성
Tuglaci(1984)
작가 Hayri

폐면은 논쟁의 중심이었으며 현대화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상징으로 사용되어왔다. 여성의 의무적인 베일 착용문제에 대한 논쟁 중에 여성의 옷은 변화하여 수세기 동안 같은 형태로 남아있던 도시 여성들의 옷이 매우 단순한 형태의 서구식 복장으로 변형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까지 이스타불 여성들은 유럽식 패션에 완전하게 적응하지는 못하여 외출시에는 야스막과 함께 긴 겹옷을 착용하여 얼굴모습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1874년에 이스타불에서는 본격적으로 유럽의 복장을 입기 시작하였으며 차츰 의복이 유럽식으로 변형되면서 얇은 베일과 양산이 조화되어 사용되었고 그 이후 베일이 모자스타일(hat-veil)로 교체되었다(이정순, 2001)〈Fig. 16〉. 현대화의 개혁운동 중심에는 여성의 교육과 복장의 개혁이 포함되어 있어 여성폐면을 철폐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며 중요한 사안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3) 폐면아이템 착용의 이원화 현상

이슬람사회의 모든 여성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적다. 도시나 시골환경으로 조성된 삶의 상황 속에서 그 차이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Schirmmacher, 2008). 터키 여성들의 복식은 이스타불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여성과 시골지역인 아나톨리아의 복식에 차이를 보인다. 특히 개혁과 개방으로 인해 서구의 유행을 받아들이는 정도와 폐면의 관습이 철폐되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6~17세기 이스타불에서 여성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는 폐면관습은 상류층에서는 확고하게 지켜졌지만 하류층과 시골지역에서는 느슨하게 시행된 반면, 19세기 서구의 영향을 받은 복장이 이스타불에서는 유행하였지만 아나톨리아 지역 여성들은 서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박하고 전통적인 차림이었다. 현재 이스타불에서는 유럽의 지역에 속하면서 교육의 수준이 높은 지역 여성들 중에는 폐면용 스카프를 착용한 사람이 적은 반면, 유럽에 속하지 않은 이스타불의 지역과 서민 여성들은 폐면용 스카프를 착용한 사람이 더 많다(이정순, 2001)〈Fig. 17, 18〉.

신부의 전통적인 베일에서조차 이원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신부의 베일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며 장식물을 많이 하였다. 신부의 전통적인 베일은 예술적일 뿐만 아니라 재산이 되기도 하였지만 도시에서는 이러한 의미와 특성보다는 패셔너블한 유행풍으로 대체되었다(Tuglaci, 1984). 이스타불지역에서도 유럽쪽에 속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그리고 이스타불과 같은 대도시와 아나톨리아지역, 교육수준과 경제수준 등에 따라 폐면아이템 착용의 이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Fig. 17〉이스타불의 상류층여성 Tuglaci(1984), 작가미상



〈Fig. 18〉 터키의 시골여성(아르메니아) Tuglaci(1984), 작가 Huseyin Fazil Enderuni

IV. 결 론

터키의 수도 이스타불은 기독교문화와 이슬람문화의 점점 지로서 양쪽의 문화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지로서 두 대륙의 문화를 모두 반영한 독특한 미용문화를 형성하였다. 이슬람국가인 터키, 특히 세계적인 도시 이스타불은 주변의 타 이슬람국가와는 다른 폐면문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터키의 이스타불 정복 후 문화적 충돌과 더불어 근대화가 시작된 16세기부터 현대까지 폐면아이템은 다음과 같이 변천하였다.

16세기 초, 이스타불 여성의 머리장식은 강조된 호토즈와 스카프가 특징적이다. 스카프의 양 끝을 목에서 묶고 다른 두 끝은 태슬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등쪽으로 내려와 허리까지 늘어져 있다. 17세기 여성의 폐면아이템은 단순해졌는데, 호토즈, 깃털장식, 태슬로 이루어졌고 17세기 이후 유럽의 영향을 서서히 받기 시작하였으나 여성의 외출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18세기는 여성복장이 매우 우아하였다. 18세기

초기는 매우 투명한 느낌의 흰색 야스막에 금이나 각종 보석으로 장식을 하기도 하였고 대체적으로 실크, 레이스, 시폰 등을 이용한 가볍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19세기에 유럽 여성의 복식의 영향을 받았으며, 19세기 말 얼굴은 모슬린으로 만든 베일로 가렸는데 후에는 베일을 내려서 얼굴을 드러내었다. 베일은 시대에 따라서 점차 간소해졌고 좀 더 얇고 투명한 거즈를 사용하여 보이지 않았던 얼굴이 비치게 되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스탄불 여성 폐면아이템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스탄불 여성폐면의 주요 아이템은 일반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것과 머리에 직접 장식되는 것의 두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페즈나 호토티와 같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쓰개에 자신의 머리에 맞추어 쓰는 베일을 함께 사용하거나 단독적으로 착용하게 되는 형식이다. 페즈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 하나로 크기와 소재가 다양하였다. 베일은 페즈만큼 많이 활용된 중요한 머리쓰개로 머릿수건, 크레이프, 쇼올 등 다양한 소재와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 외에 삼각수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호토티, 하나는 머리 위에 쓰고 하나가 턱 아래쪽에서 매는 형태인 야스막, 머리띠 형태의 카쉬바스티, 신부의 베일인 두박, 신부의 머리쓰개인 바실리크 등이 있었다.

이스탄불지역 폐면문화는 다음과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스탄불 여성의 폐면 아이템은 다른 이슬람문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스탄불의 모든 여성들이 개방화 서구화 된 것이 아니고 이슬람을 신봉하는 가정의 여성들은 폐면문화를 고수하고 있다.

둘째, 이스탄불지역의 폐면아이템은 착용자에 대한 표현 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 신분 및 상황을 표현하였고 심미적인 표현에 적극 활용되었으며 경제적인 격차가 반영되었다.

즉, 이스탄불 여성은 색상이나 착용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나 처한 상황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는데, 지역마다 상징하는 의미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스탄불의 쓰개류와 베일은 매우 심미적이었으며 이스탄불 여성의 복장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었다. 이스탄불의 경제적 번영은 서구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작용을 하였으며, 각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폐면 아이템에 반영되었다.

셋째, 이스탄불은 타 이슬람 지역에 비해 개방적인 방향으로 폐면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유럽과의 문화교류로 인한 서구화의 영향이다. 즉, 이스탄불의 폐면관습 철폐는 서구화과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혁에 의해 가속화 되었고 개혁의 상징이 되었다. 그

리나 폐면문화의 철폐과정은 도시와 시골, 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등에 따라 뚜렷한 이원화 현상을 보인다.

현재 세계적인 관광도시 이스탄불은 16세기 이후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개혁의 노력 등으로 타 이슬람문화와는 다른 여성 폐면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 참고문헌

공일주(2006). **이슬람문명의 이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류보영, 임상임(2002). 조선시대 여성 폐면용 쓰개의 특징 - 박물관 유물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9/10), 1424-1435.
 오은경(2008). **베일속의 이슬람과 여성**. 서울: 프로네시스.
 오춘자, 박길순(1994). 近東地域의 服飾研究Ⅱ -오스만 터키의 복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회지** 2(1), 11-20.
 우덕찬(2003). 근대화·케말리즘·여성 -터키의 경우-. **지중해지역연구** 5(2), 153-175.
 의상디자인연구회 편(1992). **세계민속의상과 패션**. 서울: 학문사.
 이명권(2008). **무함마드와 예수 그리고 이슬람**. 서울: 코나투스.
 이정순(2001). 무슬림여성의 베일 상징성에 관한 연구 -터키 이스탄불 여성을 중심으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순(2004). **무슬림여성성과 베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이희수, 이원삼(2003). **이슬람**. 경기: 청아출판사.
 장상숙(2008). 중세 유럽 여성의 머리쓰개형 헤어스타일의 기원과 상징적 의미. **한국미용학회지**, 14(2), 463-470.
 전해정(2005). 터키복식양식 연구. **여성연구논총** 20, 47-65.
 Schirmacher, C.(2010). *Islam and Society*. Bonn: Verlag für Kultur und Wissenschaft. **이슬람과 사회**. 김대옥, 전병희(공역). 인천: 도서출판바울. (2008년 원저 발간)
 Tuglaci, P.(1984). *Women of Istanbul in Ottoman time*. Istanbul: Istanbul.
 トルコ文明展(1985), 出光美術館, 358-361.
 접수일 : 2010년 12월 31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1년 4월 13일